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시 : 2021. 2. 9(화) 14:00

□ 회의장소 :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

□ 참석이사 : 김상균 이 사 장  
강재원 이 사  
김경환 이 사  
김도인 이 사  
문효은 이 사  
신인수 이 사  
유기철 이 사  
최기화 이 사  
최윤수 이 사 (9명)

□ 불참이사 : 없 음

---

## 제3차 정기이사회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 보고

- 의장
  -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재적이사 아홉 분 전원과 감사님이 참석하셔서 제3차 정기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2. 개회 선언

-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 회의록 확인

- 의장
  - 전차 회의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할 회의록은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간사가 회의록 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지난 1월 14일에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먼저 MBC 현안보고로 MBC 관계사 임원 선임 절차와 MBC 자회사 합병안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MBC 감사로부터 MBC의 2020년 하반기 감사결과 및 2021년 감사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 회의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 이사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사회 폐회 후 데스크에 비치된 회의록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4. 경과 및 동정 보고

##### ○ 의장

- 간사로부터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들겠습니다.

##### ○ 간사

- 먼저 사무처 업무보고입니다. 전 사무처장 행정소송 건에 대해 2월 8일에 항소하였습니다. 저희 쪽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세입니다. 같은 날 중노위도 항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삼성증권에 예치한 43억원이 만기가 되어서 거기에 7억원을 더 보태서 삼성증권 ELB 50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치기간은 12개월이고 연 수익률은 1.2%입니다. 다음 MBC 관련 동정입니다. 2월 1주차 핵심시간대 가구시청률은 3.9%입니다. 2049시청률 상위 10개 프로그램에 MBC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나혼자 산다>와 <놀면 뭐하니>입니다. 메인뉴스 시청률이 주중에는 5.4%, 주말에는 5.6%입니다. 어제 MBC 사장이 방문진 이사장께 방문진 자금 출연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출연금 액수는 가결산한 바로는 6억원 후반대입니다만 회계감사가 완료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송계 동정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wavve에서 송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가 서비스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원님 향후 일정 안입니다. 2월 25일 오후 2시에 제4차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본회의 2020회계년도 결산보고와 MBC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1일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6일 오후 2시에는 제1차 임시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MBC 상반기 업무보고 2일차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제5차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의장

-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건 심의 건입니다.

##### ○ 최기화 이사

- 지난번 회의에서 4월 1일에 최경환 신라젠에 65억원 투자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보도였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들여보내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보도한 내용이 “이철 씨가 옥중편지를 통해서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5억원, 그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게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뵈었다’라는 것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들었다’ 한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형태를 보도했는데, 최소한 이 보도는 그렇다면 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재의 원칙입니다. 이런 사실보도도 하지 않고 무려 톱으로 5쪽지를 보도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보도한 당일입니다.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을 포함해 이번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나 하면 스스로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지요. 그리고는 어디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결국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방송하게 된 셈이지요. 왜 이런 부분들이 데스크도 거치지 않고 편집회의에 걸러지지도 않고 국장도 승인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갔느냐는 것이지요. 가장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은 이런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후조치도 없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 의장

- 제가 비공식 채널에서 들은 보고 내용과 최 이사 주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판단을 구했더니 보도이사를 불러서 우리가 물어보면 자칫 보도의 독립성·자율성 침해 문제도 있다고 하니 오늘 마침 사장이 사전협의건으로 와서 보고하니까 우선 사장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왜냐 하면 최 이사가 주장한 내용과 보도국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최기화 이사

- 제가 주장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을 보도한 것입니다.

○ 의장

-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쪽으로는 최경환 전 의원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가 MBC 쪽에서 크게 최 이사 말씀처럼 결정적인 가짜뉴스를 냈다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장 왔을 때 한번 물어 봅시다. 들어보고 그것이 굳이 최 이사 말씀이 맞다면 그 다음에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든지 하고, 일단 경위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안건 심의**

**1) MBC 관계사 임원 선임 사전협의건**

○ 의장

- 다음은 "MBC 관계사 임원 선임 사전협의건"입니다.

(박성제 MBC 사장 입장)

○ 의장

- 본 안건 논의는 본회 규정과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안건 설명하십시오.

**[비공개 논의]**

○ 의장

- 이상으로 MBC 관계사 임원 선임에 대한 MBC와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사무처장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어제 제가 박 사장으로부터 방문진 출연과 관련한 증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사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머리 깎기가 그래 보여서 사무실에서 간단히 둘이 증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회가 남달라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저희 11기 이사회 출범 이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세 번 국회에 나갔습니다만 재작년, 작년 2년은 경영적자 때문에 모든 질문의 전제라고 할까, 서두에 “적자를 1,000억원씩 보는 주제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답변하기가 난감했습니다. 감독기관의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속수무책인가,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었으니 제가 마지막 종합감사 때는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밤 12시까지 14시간 앉아있었는데 어느 의원도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평생 처음으로 지루한 경험을 해 봤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10월 현재 흑자라는 보고내용이 일부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적 토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는데, 지금 그런 판에 저희 11기에서 출범시킨 박성제 사장 경영진들이, 과정과 내용은 여러 이사님들이 아시니까 빼겠습니다. 어쨌든 1년 안에 1,000억원 적자를 단 몇억원이라도 흑자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이사님들 동의하신다면 박 사장 소회를 간단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 이야기하십시오.

○ 박성제 MBC 사장

- 작년에 사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이후 경영능력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감은 있었지만 용기와 패기 그리고 경영진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시작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MBC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 또 하반기에 예능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디지털 쪽에서 경쟁력이 확 살아나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방문진에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위해 자금을 다시 4년 만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사님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지난번에 보셨지만 150억원 이상 흑자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흑자를 많이 낸다고 해서 꼭 칭찬을 받는 회사는 아니니까 적정 규모로 열심히 매출을 확대하되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콘텐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생각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님들이 지적하신 비정규직 문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제 MBC 사장 퇴장)

**2) MBC 관계사 합병 결의건**

○ 의장

- 다음은 “MBC 관계사 합병 결의건”입니다.

(박장호 MBC 기획조정본부장 입장)

○ 의장

-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장호 본부장, 안건 내용이 공개 가능한 것입니까?

○ 박장호 MBC 기획조정본부장

- 합병 건이어서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 의장

- 그러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비공개 논의]**

○ 의장

- 이상으로 MBC 관계사 합병은 원안대로 결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강재원 이사

-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 말씀하십시오.

○ 강재원 위원

- 안건 제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몇 분의 이사님들이 동의하셔서 함께 논의해서 방문진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되든 간에 가칭 방문진 미래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진이 나가야 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번 11기 기수에서 제대로 해 놓고 다음 기수가 그것을 받아서 좀 더 구체화하거나 또는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용이 들기도 해서 자발적으로 선의의 목적에 따라 모여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먼저 체제를 갖추고 또 비용을 쓰면서 어느 정도 백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11기를 마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논의들이 많고 방문진 미래에 대해서도 부분부분적으로 이사회 때 논의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논의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개혁위원회라고 해서 밖에서 사회적 논의가 곧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방문진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외적인 논의와 함께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으면 합니다.

○ 김경환 이사

-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서 다음 이사회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면 이사님들이 보시고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서 세팅하는 식으로 해서 3월 정도부터 해서 7월 정도 하고 끝내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의장

- 이사님들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 논의하셔서 안건 형식으로 해서 이사회 논의를 거쳐 짧은 시간 안에 11기 이사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회는 2월 25일에 제4차 정기이사회로 개최됩니다.

## 6. 폐회 선언

○ 의장

- 이상으로 2021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폐회】